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평가

유영옥
(경기대)

국문 초록

인천상륙작전으로 인천해안교두보를 확보한 미국 해병대 제1사단은 9월 16일부터 한강으로 진격을 개시하였다. 9월 18일부터 후속부대인 미국 육군 제7사단과 한국 육군 제17연대가 상륙하여 서울 수복과 적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였고, 9월 27일 한국 해병대가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후 소탕전을 전개하여 9월 28일 수도 서울은 90일 만에 수복되었고,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작전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전쟁사(戰爭史)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쟁의 주도권 전환으로서 대우회 기동전략을 통한 기습으로 적의 병참선을 차단, 적에게 물리적·심리적 교란효과를 달성하여 적의 전투의지를 약화시킴으로써 공세 이전의 계기가 되었다.

둘째, 한국군과 유엔군의 인적·물적·시간적 손실을 최소화 시켰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지상반격작전을 감행했을 때 북한군은 금강선, 천안-장호원선, 한강선, 38도선의 최소한 5개 지연진지에서 축차적으로 조직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약 10만 명 이상의 한국군과 유엔군의 손실과 수많은 민간인의 학살을 예상할 수 있었다.

셋째, 전략적 대포위기동의 대표적 전례가 되었다는 것과 이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지휘관의 전략적 식견과 미 해군 및 해병대의 전문화된 상륙전 능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천상륙작전은 작전 자체의 성과보다는 이후의 피·아 작전에 미친 영향에서 더욱 더 전쟁사적인 의의를 갖는 작전이었다. 기습효과 달성을 통한 적의 전투의지에 대한 파쇄와 상대국 전쟁지도부의 성향, 그리고 언제든지 상륙작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해·공군 세력이 불균형, 전장의 지리적 특성이 상호 결합되어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작전은 6·25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로 다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8도선 이남지역에서의 전투에서 공세이전의 계기를 조성하여 일거에 전세를 역전시킨 점과 북한군의 전투력 와해로 인한 전쟁 주체로부터 이탈, 유엔군의 전쟁 목적 변경, 한국군의 전투사기 고양과 지형목표의 집착, 중공군의 개입시 추가적인 상륙작전 위협에 대한 대비책으로 각 공세시마다 북한지역의 동·서해안에 대상륙 방어부대를 분산 배치하지 않을 수 없게 함으로써 정면전선으로의 병력의 집중현상을 막을 수 있었던 것 등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친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군사학, 정치학, 전쟁사, 인천상륙작전, 유엔군, 육, 해, 공군.

I. 서론

인천상륙작전과 서울탈환작전은 1950년 9월 15일부터 수도서울탈환에 이어 정부 탈환에 성공한 10월 3일까지 미 제10군단(미국 해병대 제1사단, 미국 육군 제7사단, 한국 해병대 제1연대 등)이 북한군 서울지구위수사령부 예하 부대들을 격퇴시킨 작전이다.

1950년 한국전쟁당시 한국군과 유엔군이 초기의 수세에서 벗어나 반격을 시작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쟁초기 기습공격과 엄청난 전투력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진격한 북한군은 유엔군의 참전과 한국군의 반격으로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져있었다.

맥아더장군은 북한군이 남진을 계속할 경우 장차 인천으로의 상륙작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미 지상군의 참전이 결정된 나흘 뒤에 이미 일본에 주둔한 미국 육군 제1기병사단으로 7월 하순에 인천상륙작전을 단행할 수 있도록 상륙훈련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미지상군을 수원부근에 투입하였으나 북한군의 남진을 막지 못해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북한군을 포위 격멸하려는 블루하트(Blue heart)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다.

이후 계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계획 100-B(인천)’, ‘계획 100-C(군산)’, ‘계획 100-D(주문진)’의 3개안 중 낙동강에서 반격을 취한다는 ‘계획 100-B(인천)’가 채택되어 9월 15일을 예정으로 한 크로마이트(Chromite) 작전계획이 수립되었다.

상륙예정지인 인천은 서울에서 서쪽으로 32km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최단거리 항구이고, 수도 서울을 탈환함으로써 적에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가 할 수 있는 한편, 남한 깊숙이 투입된 북한군의 보급선을 차단할 수 있으며, 동시에 낙동강 전선에서 총반격을 실시함으로써 북한군 주력을 압축 섬멸함으로써 소수의 희생으로 많은 성과를 획득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 작전이 시행될 인천항은 많은 난점을 안고 있었다. 즉, 인천항에 이르는 수로는 좁은 단일수로로서 대규모 함정의 진입이 불가능하고, 적이 기뢰를 매설할 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며, 조수간만의 차가 10m 내외로 심하고, 지형 등 자연적인 불리한 조건과 병력, 탄약, 보급품의 운송 등 작전을 지원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라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대안으로 군산이나 아산만 해안의 포승면 일대로 상륙지점의 변경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은 “적은 후방을 무시하고 있고, 병참선이 과도하게 신장되어 있으므로 서울에서 신속히 이를 차단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전투부대는 사실상 낙동강 일대의 제8군 정면에 투입되어 훈련된 예비 병력마저 없어, 전세를 회복할 능력이 거의 없다” 라고 설명하였고, 전략적, 심리적,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중요한 수도 서울을 단 시일 내 탈환하기 위해서는 인천에 상륙해야 한다는 맥아더 장군의 결단으로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8월 28일 ‘크로마이트(Chromite) 작전계획’을 승인 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상륙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상륙지역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유엔 해군과 공군은 9월 7일부터 14일까지 동해와 서해에서 양동작전을 펼쳤으며, 이 기간에 유엔 공군은 총 3,250여 회나 출격하여 전략·전술 표적을 강타하였다.

이 계획에 의거 편성된 상륙부대로 미 제10군단을 창설하여 군단장에는 알몬드(Edward M. Almond) 소장을 임명하고, 예하에 미국 해병대 제1사단<사단장 스미스(Oliver P. Smith) 소장>과 미국 육군 제7사단<사단장 바아(David G. Barr) 소장>, 한국 해병대 제1연대(사령관 신현준 해병대 대령), 한국군 육군 제17연대

(연대장 백인엽 대령)등 총 병력 75,000명으로 편성하였고, 인천항의 확보와 해안 교두보 점령, 가능한 한 신속히 진출하여 김포비행장 확보, 한강도하 및 서울 탈환, 미 제8군과 연결 작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서울 근교의 진지 점령이라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인천상륙작전을 결정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하여 극동해군은 제7합동기동부대를 구성하였다.

9월 15일 새벽, 제7합동기동부대 스트러블(Arthur D. Struble) 해군제독의 지휘 아래 항공모함, 구축함, 순양함 등 8개국 261척의 함정과 제10군단으로 편성된 대구 모선단이 인천앞바다에 집결하였고 월미도에 상륙 돌격을 감행할 미 제5해병연대 제3대대 상륙단의 선견공격대가 인천수로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얼마 후, 해군정보장교 클라크 중위가 밝혀주는 팔미도 등대의 안내를 받아 무사히 인천항에 이르렀다.

인천해안교두보를 확보한 미국 해병대 제1사단은 9월 16일부터 한강으로 진격을 개시하였다. 9월 18일부터 후속부대인 미국 육군 제7사단과 한국 육군 제17연대가 상륙하여 서울 수복과 적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였고, 9월 27일 한국 해병대가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후 소탕전을 전개하여 9월 28일 수도 서울은 90일 만에 수복되었고,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작전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II. 인천상륙작전의 배경과 준비

1. 인천상륙작전의 배경

1) 작전계획의 수립

북한공산군의 기습공격으로 한국군과 유엔군은 초기에 열세한 입장에 몰려 후퇴가 불가피하였다. 그리하여 가능한 한 지연작전을 실시하고 적에게는 끊임없는 전력 소모를 강요하는 한편 전세 만회와 반격의 기회를 포착하려 하였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은 1950년 6월 29일 한강 방어선을 시찰했을 무렵, 미 지상군을 투입하여 적 주력을 수원 근방에서 고착시키는 한편, 미국

육군 제1기병사단을 인천에 상륙시켜 적의 보급선을 차단, 공격한다는 계획이며, 그 개념은 태평양전쟁시 'By Pass 전술'과 같은 착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전쟁에 패한 사람들이 소용돌이치듯 그의 옆을 지나가는 속에서 서울이 내다보이는 한 언덕에서 이 같은 구상을 하였다.

일본 도쿄(東京)에 돌아온 맥아더는 그의 참모들에게 이 작전을 언제, 어디에서, 그리고 어떤 병력으로 상륙작전을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지시하였다. 이것이 상륙지점을 인천으로 하는 '크로마이트(Chromite) 작전계획'이었다. 이 계획이 워싱턴에 보고되자 미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육군참모총장 콜린스(J. Lawton Collins) 대장과 해군참모총장 서먼(Forrest P. Sherman) 제독을 도쿄의 맥아더 사령부로 파견했는데 합참에서는 가능하면 이 작전을 포기시키려 하였다. 1950년 8월 23일에 맥아더사령부에서는 상륙작전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 육군과 해군의 인천상륙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작전지역의 특징

육군에서는 상륙군으로 낙동강 방어선에 투입된 부대를 전용하는 것은 낙동강 방어선 유지가 곤란하며, 인천이 주전장터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각개격파를 당할 위험이 있고, 일본에 주둔중인 미 제7사단을 상륙작전에 투입할 경우에는 일본 방위에 공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해군에서는 인천항의 조수간만의 차이가 6.9~10m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심하며, 간조 시 개펄이 3.2km까지 형성되고, 인천항의 입출항 수로가 협소하고 6knots(약 12km)의 빠른 유속, 월미도로 인한 기습효과의 상실, 5m 이상의 인천항 해벽(rock cliff), 해안에 인접된 인천 시가지, 공격개시일인 9월 15일의 만조시간이 2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었다.

3) 작전성공시 기대효과

맥아더는 다시 한 번 그의 계획의 대담성과 함께 이 작전이 성공하였을 때 한국 사람들에게 줄 큰 감명과 유엔군에게 가져올 위대한 승리를 강조해 설명했다.

“인천에 상륙한 부대는 ‘모루(anvil)’ 가 될 것이며, 워커(Walton Walker) 장군이 지휘하는 미 제8군이 ‘망치(hammer)’ 가 되어 병참선 차단으로 후퇴하는 북한군을 타격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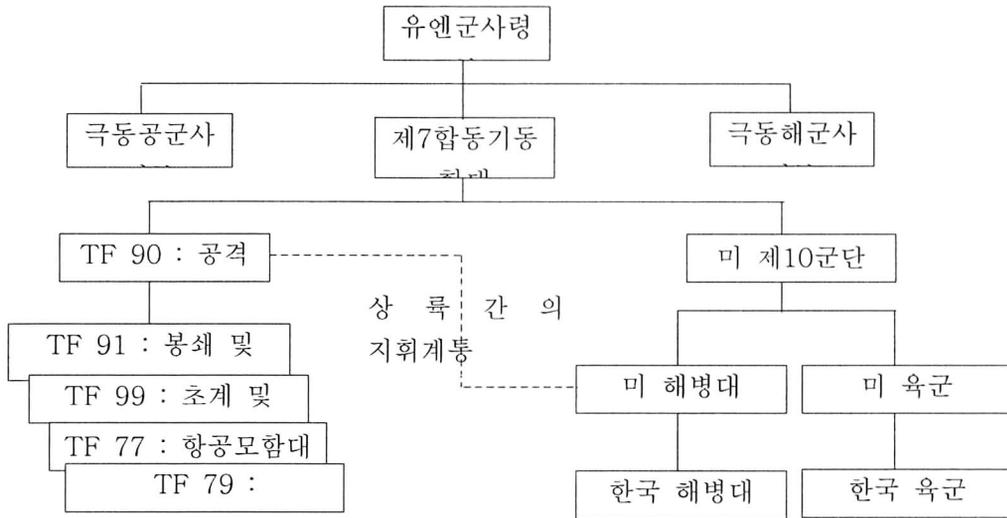
“상륙작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를 적절하게 운용한다면 적 영토를 깊숙이 그리고 강력하게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인천작전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 후, “이 작전은 10만 명의 인명을 구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대화하는 어조로 돌아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 해군과 더불어 실시한 상륙작전을 상기시켰다.

“미 해군은 과거 본인을 실망시킨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본인은 인천작전이 5,000대 1의 도박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모험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멈추더니 연극하듯 목소리를 낮추어 거칠게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우리는 인천에 상륙할 것이며, 나는 그들을 파쇄 시킬 것입니다.”

상륙개시일을 9월 15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륙함정이 접안(beaching)시 충분한 수심(29 feet)을 보유할 만조상태는 1950년 가을에 3차례(9/15, 10/11, 11/3)밖에 없으며, 만약 상륙이 늦어질 경우 미 제8군의 방어선이 피로와 혹서로 인하여 붕괴될 가능성이 많으며, 인천의 방어 상태 강화와 대량의 기뢰부설 시간을 부여하는 우를 범할 수 있고, 추수기인 10월 이전에 남한지역을 회복하지 못하면 북한군에게 대량의 전쟁지속 식량을 약탈당하게 되며, 한국의 기후를 고려해볼 때 동계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고 역설했다.

2. 준비

1) 전투 편성



주: ① 상륙작전은 형식상 맥아더로부터 조이에게 연결되어 있었으나 실병 총지휘는 스트러블이 담당했으며, 상륙시에는 스트러블의 부사령관인 도일이 미국 해병대 제1사단으로부터 주축을 이룬 제1상륙단을 지휘하였고, 교두보확보 후 상륙군의 지휘는 스미스는 총지휘권이 스트러블로부터 알몬드로 이양될 계획이었다. ② 상륙부대 규모는 지상군 75,000명, 함선 261척.

맥아더 원수는 8월 15일경에 상륙작전을 위한 상륙군사령부를 편성하고 그 예하에 한국 육군 제17보병연대(연대장 백인엽 대령), 한국 해병대 제1연대(연대장 신현준 대령), 미국 육군 제7보병사단(17, 31, 32연대, 카투사(KATUSA 8,637명 포함)(사단장 David C. Barr 소장), 미국 해병대 제1사단(1, 5, 7연대)(사단장 Oliver P. Smith 소장)을 편성하였으며, 8월 26일에는 제10군단을 편성하고 군단장에 그의 참모장인 알몬드(Edward M. Almond) 소장을 임명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상륙군부대 규모는 지상군 약 7만 5천명, 함선 261여 척(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한국해군 초계함 4척, 소해정 7척 등을 포함)에 달했다.

워싱턴으로 복귀한 콜린스와 셔먼은 존슨(Louis Johnson) 국방장관, 트루먼 대통령에게 방문 결과를 보고하였다. 국방장관은 맥아더 장군의 계획을 확고하게 지지하였고, 그는 후에 대통령의 지지도 얻어냈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결국 8월 28일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맥아더 장군의 계획을 승인하였다. 그러면서도 군산지역에 대한 계획준비도 병행하도록 단서를 붙이고 금후의 진전사항에 대하여 적시에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맥아더 장군은 8월 30일에 인천상륙작전

명령을 하달하였으며, 9월 6일에 상륙작전일을 9월 15일(D일)로 확정 하달하였다.

미 제7합동상륙기동부대(7th Joint Task Force, 사령관 Arthur D. Struble 해군중장)는 미 육군중장 알몬드가 지휘하는 상륙부대인 제10군단과 미 해군소장 도일(James H. Dyle)이 지휘하는 공격함대(TF-90)를 지휘하였는데, 부여받은 일반적 임무는 청천강 이남지역의 한국해안 봉쇄와 D일 인천지역에 상륙돌격을 실시하여 해안교두보를 확보하고, 의명 후속제대 및 전략예비의 수송과 기타 부수적인 작전 등의 임무를 부여하고, 아울러 수상함정 및 항공기의 소련 및 중공 국경으로부터 12miles 이내에서의 행동금지 등이 포함된 사항이었다.

2) 항공지원계획

항공지원계획은 9월 8일에 편성된 미 제10군단 전술항공대는 인천 및 서울 인근에 대한 항공작전을 D-3일부터 지휘통제하며, 목표 외곽 지역의 통신 및 수송로를 차단한다.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미 극동공군과 해군 및 해병 항공대가 협조하여 D-10일부터 D-3일까지 전장차단과 제공권 장악 임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목표지역에 대한 근접지원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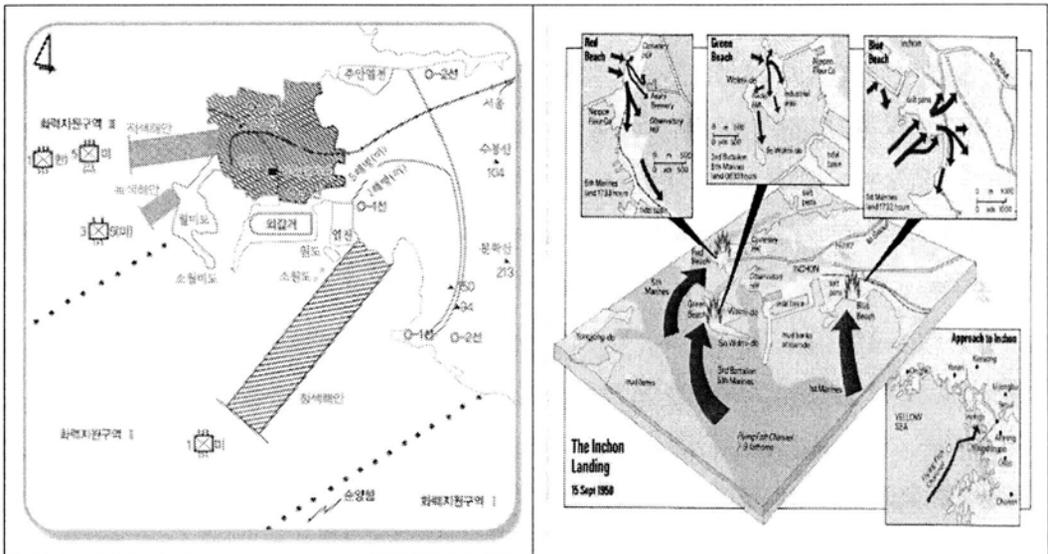
3) 해상지원계획

해상지원계획은 인천 앞바다를 3개의 화력 구역으로 나누고 순양함과 구축함은 H-45~H-2시에, 로켓포함은 H-15~H-2시에 공격준비포격을 가한다. 아울러 상륙작전 중간이나 상륙 후에도 요청에 따라 지원 및 차단포격을 실시한다.

4) 지상군의 상륙계획

지상군의 상륙해안을 적색해안(Red Beach), 녹색해안(Green Beach), 청색해안(Blue Beach)으로 삼분하고, 병참물자 하역지역은 황색해안(Yellow Beach)으로 명명한다. 미 제5해병연대 3대대는 9월 15일 오전 만조시인 06:30분 녹색해안에 상륙하고, 오후 만조시인 17:30분에는 미 제1해병연대가 청색해안에, 제5해병연

대 주력은 적색해안에 상륙해 교두보를 확보한다. 한국해병대는 의명 적색해안에 상륙하여 인천시까지 소탕작전을 실시한다. 교두보가 확보되면 미국 해병대 제1사단은 김포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격한다. 후속 상륙한 한국 육군 제17보병연대와 미국 육군 제7보병사단 주력은 서울 남측방으로 진격하고, 일부는 수원 방면으로 남진하여 서울 이남의 퇴로를 차단한다.



3. 인천상륙 작전의 위험성

8월 23일 동경에서 열린 회의에서 맥아더 원수가 인천상륙작전에 관한 그의 복안을 설명하자 육군참모총장 콜린스 대장과 해군참모총장 셔먼 제독은 이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인천보다는 군산을 상륙지점으로 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여기서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었던 연합 및 합동부대 작전계획의 문제점, 즉 인천상륙작전이 실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작전계획을 반대했던 이유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개 격파의 위험이다. 인천은 부산에서 240km나 떨어져 있고 인천에 상륙함으로써 소수의 유엔군을 분산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인천에 상륙할 예정병력이 불과 2개 사단 규모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소수의 병력으로 각개 격

파당할 염려가 있고, 예비병력의 증원도 바랄 수 없는 형편에 놓일 것이다.

둘째, 낙동강방어선의 유지 곤란이다. 당시 유엔군 계획에 따라서 미 8군에서 해병여단을 차출하여 상륙작전 제1제대로 쓰려고 하는 계획이었지만, 해병대를 낙동강전선에서 차출하게 된다면, 부산교두보의 확보가 위태롭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인천상륙작전의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일본의 방어 공백이다. 일본에 있는 미국 육군 제7사단을 상륙작전부대로 쓰게 된다면 일본의 육상방어력이 없어지게 되므로 일본 북쪽에서의 소련의 위협과 일본자체의 치안문제에도 곤란이 생길 염려가 있다.¹⁾

넷째, 상륙선박의 부족이다. 인천상륙작전에 쓸 만한 선박은 결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미8군에 대한 보급용 선박까지 전부 사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만일 작전에 실패하게 된다면, 그때에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할 염려도 있다.

다섯째, 인천의 지형적, 해안적 조건의 부적합이다. 인천의 지리적, 지형적 및 조건이 모두 상륙작전에는 전혀 부적당하다는 것은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사실로써, 특히 해군측 상륙작전 전문가가 제시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육군대학, 1996a, 251~252).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곳으로 평균 6.9m이며 최고 10m에 달할 때도 있다. 따라서 만조의 경우 폭이 1.8km에서 2km, 길이가 90km, 깊이가 10m 내지 15m의 구불구불한 수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수로(일명 : 飛魚水路)의 조류속도가 평균 5m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로에 만일 기뢰를 설치하였다고 한다면 단 한척의 배가 이 기뢰로 말미암아 침몰될 때, 이 수로는 완전히 막혀버리게 될 것이다.

인천항의 입구에는 표고 105m에 다하는 월미도가 솟아 있는데 인천항에 상륙하기 위해서는 먼저 월미도를 제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가 굳게 지켜져 있을 때에는 적어도 이를 동안에 걸친 공격준비사격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작전상의 전술적 불가결의 요소인 기습 효과를 달성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1) 당시 일본에는 미8군 예하 보병 제24보병사단(큐우슈우), 제25보병사단(일본본토 서부), 제1기병사단(일본본토 동부), 제7보병사단(홋카이도)이 위치하여 점령군이 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제24보병사단, 제25보병사단, 제1기병사단은 기투입되었고 제7보병사단만 남아있었다.

주상륙은 17:00(만조시간)에 시작함으로써, 야음을 이용(EENT 18:30)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는 인천항의 불리한 조건으로, 자재와 병력을 양륙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두 시간밖에 없었다. 따라서 적의 야간반격을 지탱할 수 있는 물자와 병력을 양륙하려면 특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인천항에 상륙용 주정이 접안할 수 있는 곳은 5m 이상이나 되는 인천항의 안벽뿐으로 이 안벽으로 직접 통과해야 하고, 통과 후 바로 인천시가의 중심을 향하여 공격을 감행하는 시가지 전투를 연이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구 25만이나 되는 도시 안에 높이 솟아있는 건물에서 적의 부대가 반격을 하게 된다면, 양륙시간이 제한되었던 것과 같이 해두보 설치를 위한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그리고 인천에 상륙하려면 언제나 만조시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북괴군이 유엔군의 상륙을 예상한다면, 그들은 9월 15일과, 10월 11일 그리고 11월 3일이 상륙예정일이 되리라는 것쯤은 계산할 수 있고 또한 상륙시간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륙시기를 기습적인 시기에 임의로 선정할 수 없는 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반문제 이외에도 유엔군측 해군이 제해권은 장악하고 있었지만, 적이 기뢰를 부설해 놓았을 때, 이를 극복하는 문제와 인천에 유엔군이 상륙하여 아군이 서울을 향해 진격하게 될 때 지금까지 수세로만 몰려있던 낙동강의 전세도 역전되어 공세로 전환되는 한편, 도리어 적이 반대의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 1949년 3월 18일 소위 소·중방위조약을 체결할 중공이 적극적으로 무력간섭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점도 염두에 두어야 했던 것이다(육군대학, 1996a, 251~252).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맥아더 사령관이 인천상륙작전을 고집하게 된 이유는 맥아더 사령관의 연설문에 잘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배적인 요소는 기습의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즉 아군이 이와 같이 어려운 조건들을 들어 상륙작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적의 지휘관도 역시 인천상륙작전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요소가 적에게 기습을 가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된다는 점이다.

둘째, 맥아더 사령관이 “전사는 우리에게 심중팔구가 후보급로(병참선)의 차단으로 인하여 격파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고 말한 바와 같이 아군이 성공적으로 인천에 상륙한다면 적은 양편에서 협공을 면치 못할 것이고, 부산교 두

보의 압력을 당장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적은 당시 모든 보급품과 탄약을 서울을 통해 공급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차단하면 낙동강전선의 교두보를 공격하는 적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판단한 점이다.

셋째, 인천은 점령하면 곧 수도 서울을 탈환할 수 있으며, 이로써 한국국민에게 정치·심리적인 면에서 안심을 주고 국군의 사기를 양양시킬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적은 불의의 역습을 당해 대혼란을 일으켜 낙동강전선도 그대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육군대학, 1996a, 251~253).

넷째, 미국의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만약 아시아에서 전쟁에 패배하면 유럽의 균형도 중대위기에 직면할 정도로 한국전쟁이 중요한 전쟁이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천상륙작전을 실시해야 한다(맥아더, 1971, 418).

다섯째, 인천의 선택으로 약 10만의 생명을 구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군산의 선택은 적의 병참선 차단이 불가하고 적을 포위 섬멸할 수 없기에 상륙작전의 궁극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천상륙작전 결과를 평가해 볼 때 상륙에서부터 전면적인 총반격을 개시한 병력살상 52,198명, 포로 130,000명, 장비와 각종 포 노획 및 파괴 1,569문, 전차 131대와 기타 중장비 158문이고, 아군의 손실은 병력살상 8,479명, 장비손실 및 각종 포 17문, 전차 2대, 기타 중장비 2대 등이다.

만약 인천상륙작전이 실시되지 않고 낙동강 방어선에서 단순한 반격전을 되풀이하게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추상적 전력과 판단이 예측되는 것이다(육군대학, 1996a, 251~253).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상적인 작전결과와 인천상륙작전을 비교해 본다면 인천상륙작전은 38선 일대까지 도달하는조 결과과 10일밖에 소요되지 않았는조결반해서 낙동강선에서의 전면적인 반격은 30일의 소요가 예상되고 피·아의 병력 손실 면에서도 인천상륙작전은 아군 8,479명과 적군 52,198명 도합 60,67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반면, 전면 반격시 피·아간에 174,595명의 예상손실을 고려할 때 11만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표 4〉 낙동강전선에서의 반격시 예상피해(가정)

적의 예상저지선	예상돌파소요시간(일)	아군예상피해(명)	적군예상피해(명)
낙동강방어선	13일	58,013	14,473
금강선	7일	32,534	8,131
천안-장호원선	5일	24,705	6,017
한강선-38선	5일	24,705	6,017
계	30일	139,957	34,638
		174,595	

자료 근거 : 미군 교범에 의한 산출

III. 인천상륙작전의 실시와 서울탈환

1. 합동지원 및 작전술구상

인천상륙작전의 계획수립은 8월 23일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는 셈이었다. 8월 23일은 9월 15일 D일로 기준 D-23일 된다. 최대한 23일로 계수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시간제약을 극복하여 완성시킨 계획은 인천상륙이 전사상 유례없는 작전이라고 곧잘 일컫게 되었던 타당성의 일면을 보여주게 된다.

인천상륙작전은 합동전략기획단(JSPOG)이 작성한 크로마이트 계획중 100-B가 채택되는 7월 23일을 기준해도 1개월 여 기간에 준비함으로써 그 준비기간을 단축시켜 기간면에서 기습을 달성할 수 있었다.

위에서 말한 시간적인 제약 이외에도 계획수립요원의 부족과 정보의 부족 등, 설상가상이란 표현을 덧붙여야 어울릴 만큼 인천상륙을 위한 합동지원작전 계획수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많았다.

상륙작전은 작전 참가부대의 행동이나 복잡한 군수지원활동을 구체적으로 협조시키고 항공, 함포·야포 등의 화력지원 즉, 합동지원작전을 포함, 효율적인 지휘권 관계와 작전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요소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더욱 복잡성을 띠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상륙작전은 일련의 작전과정이나 활동을 뚜렷하게 정형화시킨 순서²⁾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계획수립단계에서는 해군부대와 상륙군 지휘관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각각의 계획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나, 탑재단계 이후(총칭 작전단계)에 들어서면 해군부대 지휘관이 모든 작전 참가부대와 작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극동 미군사령관의 기본적 작전지침인 작전계획 100-B에 근거하여 극동 미 해군사령관의 작전계획 108-50이 시달된 것은 8월 20일이었다. 이 지침에 의해서 비로소 작전지휘관이 임명되고, 작전참가부대가 구성되며 장차작전을 위한 세부계획수립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극동 미 해군사령관의 작전계획에는 제7합동기동부대(JTP-7)의 구성지침과 이 부대가 수행해야할 과업들이 밝혀져 있다.

이러한 임무를 분석하여 합동지원작전계획이 수립되게 되는데 합동지원작전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륙작전에 대비한 해군, 해병대의 전문화 유지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9월 15일로 지정된 상륙은 각 부대 간의 협조 및 조정에 요하는 시간 등이 크게 제한되어 있었고, 강한 태풍(Kaiyia)³⁾이 내습하여 오는 데에는 불구하고 모든 작전이 정확하게 실시되었다는 것은 지휘관과 참모들의 잘 조화된 팀워크에서 기인한 것이다.

실제적으로 상륙군의 주력부대였던 미국 해병대 제1사단의 경우, 계획수립에 참여할 전체참모진 107명 가운데 33명은 한국전선의 미 해병여단에 속해 있었고, 51명은 극동을 향하여 항해 중이었으며, 나머지 23명만이 마운트 매킨리호(Mount Mckinley)에서 최초의 계획수립에 착수 하였던 것이다. 미 해군은 해병대와 오랫동안 협동작전을 수행하여 왔고, 언제나 상륙작전의 요청에 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해군, 해병대에게 상륙작전을 위한 전문화 유지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현대화에 적합한 상륙작전 기술과 장비의 개발이 요구되며, 합동 및 연합

2) 그 순서는 계획수립, 탑재, 연습, 이동 그리고 돌격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 또는 활동은 해군수단으로 적 해안에 상륙부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형태의 작전을 상륙돌격(Amphibious Assault)이라 한다.

3) 남태평양 마리아나 군도 부근에서 나타난 태풍의 눈이 9월 6일 최초로 포착되었고 3일 후에는 동지나해를 거쳐 대한해협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그 중심에는 시속 200km에 가까운 강풍을 동반하고 9월 12일, 13일 예상시속 약 230km로 세력이 강화되면서 대한해협 일대를 휩쓸 것이다. 이로 인하여 9월 12일, 13일로 예정된 함정들은 하루 빨리 출항시키기로 결단하였다.

작전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인천상륙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시의 전략과 전술의 반복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것이 그대로 유효하였으며,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은 미 해군, 해병대에게 새로운 방법, 새로운 교리,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고, 그 결과 수직 상륙작전과 더불어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함안이동을 할 수 있는 상륙함정의 개발과 연합 및 합동작전 교리발전 속에서 상륙작전의 교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은 상륙작전의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참고가 될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전적으로부터 소수의 기뢰를⁴⁾ 제외하고는 잠수함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의 해상 반격도 시도되지 않았으며, 항공기의 반격도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륙돌격을 저지시키고자 하는 육상에서의 대항마저 아주 경미하였다. 이 세 가지 형태의 반격이 모두, 또한 한두 가지라도 존재하였다면 인천상륙작전은 보다 어렵게 그리고 보다 희생이 큰 가운데 수행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상륙작전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넷째, 상륙작전에서 기습 달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천상륙작전은 계획 수립과정부터 많은 반대와 회의가 따랐듯이 위험이 따르는 작전이었다.

맥아더 장군도 5천 대 1이라는 모험률을 예측하였고, 우군조차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적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 기습을 달성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다양한 합동지원작전들로 적을 기만하였고, 아군에게까지도 철저히 지킨 작전보안으로 기습효과는 상승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북괴군의 전략과 정보의 부재가 인천상륙작전에 잠재하고 있던 위험성을 해소해 주었다고 지적한 미 해군전사가 말콤 W. 케이글 중령의 말(저서 “인천상륙작전 도박의 분석”)을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⁵⁾

4) 1950년 8월초부터 소련으로부터 원산으로부터 반입한 기뢰 약 4,000개를 원산과 진남포에 부설하는 한편, 그 일부를 해주는 경우 인천, 군사, 목포까지 운반하고 있었으며, 소련의 기뢰 전문가 등에 의해 북괴 요원에 대한 기뢰부설교육과 지형답사도 진행되고 있었다. 실제로 인천지역에는 한 지역에 4발, 또 한 지역에 8발, 도합 14발의 기뢰를 발견소해 했다고 전사는 기록하고 있다.

5) 9월 8일 스트러블 제독이 소집한 항공, 함포 관련부대의 해군지휘관과 상륙군 대표가 참석한 최종회의 결과

다섯째, 효율적인 함포 및 항공지원계획은 통합되어야 한다.

인천상륙작전에서 함포사격의 개시는 기습효과와 관련하여 계획수립시 우선적인 고려요소가 된다. 목표지역 전반에 대한 항공폭격은 D-4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으나 월미도에 대한 함포사격은 기습효과와 관련하여 계획수립시 우선적인 고려요소가 된다. 목표지역 전반에 대한 항공폭격은 D-4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으나 월미도에 대한 함포사격은 기습효과와 관련하여 D-2일에 개시하되 필요시에는 D-1에도 계속하기로 결정되었다. 해안두보 안의 표적은 월미도에 2개소, 소월미도에 1개소 등 포함 모두 52개소로 분할되었다. 상륙지역 근해에는 가상적인 선을 그어 3개 구역으로 나누고 남쪽으로부터 화력지원구역 I·II·III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그리도 D일 이후 함포지원사격에 대한 시기 및 윤곽까지도 구체화시켰다. 항공지원은 기본적으로 이 작전에 참가하는 미 해군, 해병부대에 광범위한 행동반경을 필요로 하는 만큼 좁은 상대적으로 좁은 한반도 안에서의 다른 항공작전과의 사이에 각각 작전수행의 중요한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경우 작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항공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작전영역과 임무를 구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상륙장소⁶⁾로부터 반경 약 55km(30마일)의 호선(弧線)으로 구획되는 상륙목표지역⁷⁾안에서의 항공작전은 제7합동기동부대 예하의 고속함모기동부대가 전담하고 극동 미 공군은 목표지역 밖에서의 차단작전을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다. 상륙시 근접항공지원은 당시 향모 시실리호와 바텔 스트레이트(MAG-33)의 2개 대대들이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효율적인 함포 및 항공지원은 통합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완벽한 제공권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
- 6) 9월 8일 스트러블 제독이 소집한 항공, 함포 관련부대의 해군지휘관과 상륙군 대표가 참석한 최종회의 결과
- 7) 목표지역(Objective Area)이란 군사적 수단으로 탈취 또는 확보해야 하는 목표가 포함된 일정한 지리적 지역을 말하며, 상륙작전시에는 이 목표지역을 경계 짓는 해상, 지상 및 공격범위가 최초지시로 규정된다. 이 목표지역의 일부로서 상륙작전이 실시되는 것을 상륙지역(Landing Area)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해안두보를 설치하는데 요구되는 해상, 공중 및 지상지역이 포함된다. 이 상륙지역안에 해상수단으로 병력, 장비 및 보급품을 상륙시킬 수 있는 해안선의 계속된 상륙장소(Landing Site)라고 하며, 돌격상륙이 가능한 해안선 부분이 상륙해안(Landing Site)라고 하며, 돌격상륙이 가능한 해안선 부분이 상륙해안(Landing Beach) 돌격이다.

2. 합동지원 실시

작전술차원에서 전역 및 주력작전을 구상하고 실시하는 데는 전략지침에 따라 작전 목적이 도출되고 작전목표(작전적 조건)가 결정되며, 이를 실시하는데 3가지 핵심개념 즉 중심(Center of gravity), 작전선(Line of operation), 작전한계선(Culminating point)을 말할 수 있으며, 그 외 아 중심방호는 물론, 우발계획에 대비해야 한다.

먼저 전략지침은 합동작전기획단(JSPOG)에서 건의하여 맥아더 장군이 결심한 크로마이트 100-B 계획으로 인천에 상륙후 서울을 점령 북괴군 병참선을 차단하는 계획이었다. 여기에서 작전목적은 최소전투에 소전전세의 역전, 즉 전투를 상당히 생략하면서 북괴군을 와해시켜전전세를 역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작전목적 달성 위하여 작전을 실시하는데 핵심개념위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심의 개념은 모든 작전술 구상에 있어서 관건이 된다. 군대의 중심이라는 것은 군대라는 매우 복잡한 조직체 속에서 전체 조직의 원활하고 신속성 있는 운용에 있어서의 어떤 요소의 힘이나 균형의 근원을 뜻한다. 클라우제비츠(Karl Van Clausewitz)는 중심의 개념을 “모든 사물이 의지하는 전체적인 힘과 이동의 중추” 라고 규정한 바 있다. 현 교리상 작전술차원에서의 중심은 야전부대의 일개요소, 즉 집결된 적 부대, 양개 부대의 전투지경선, 주요 지휘통제시설, 군수기지 또는 병참선 등이 될 수 있다(육군대학, 1996, 144.). 한국 전쟁시 낙동강방어선까지 밀려 내려간 유엔군은 전투의 무한정 지속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적의 병참선 및 퇴로를 차단하여 낙동강전선의 전투력을 심리적으로 교란, 마비시켜 무력화함으로써 유혈의 전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그 보상으로 10만여 만 명의 병력 피해를 줄이려고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아 중심은 미 8군이 담당하고 있는 부산교두보 확보로 보며 아 중심방호를 위하여 미 8군 지원을 위한 항공전력을 할당하고, 전투지속능력을 확보시켰던 것이다.

여기에서 작전목표는 낙동강전선에서 유엔군과 대치하고 있는 북괴군 주력인 제 1군단 및 2군단 주력격멸에 두고(육군본부, 1992, 94), 그들의 주병참선 및 퇴로에 해당하는 원산-평양-서울-낙동강 적 부대에 이르는 선을 중심으로 식별하여

이를 차단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작전기동목표는 경인지역에 핵심지역인 서울로 선정하였으며 인천으로 상륙하므로 가장 단거리 작전기동목표로 지향했던 것이다(육군교육사령부, 1987, 311).

다시 말하면 적의 후방을 공격하는 작전선보다는 후방 깊숙이 차단하는데 작전선을 택함으로써 적의 군사력 전체의 전투의지를 분쇄한 것은 작전선의 선택은 전승을 위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인천이라는 지역 자체가 앞서 언급한 대로 상륙조건이 지극히 불량했음에도 최소저항선과 최소예상선으로서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적의 배후로 지향하는 작전선이 적의 분리 고립에 취약하여, 각개격파에 취약한 단점을 지적하며, 군산이라는 지역으로 상륙이 권고되기로 하였으나 이는 적의 중심으로 식별한 병참선 차단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서해상 기동로를 택함으로써 해서 인천이라는 지역에 적의 사전 기뢰설치 등이 주효했다면, 작전선을 변경할 수 없어서 작전에 실패하게 되는 대모험을 감행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전선 변경 등에 따른 우발계획에 대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나, 예상되는 기뢰 설치는 당시 소련 측에서 가지고 있는 기뢰를 부설시 제7합동기동부대 능력으로 소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추가적인 기뢰부설에 대비하여 미 함참에 추가적인 소해정을 요청한 바 있었다.

모든 공격작전은 그것이 전략적으로 결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소 시기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언젠가는 공자의 전투력이 방자의 전투력보다 현저하게 우세하지 못하는 순간에 도달하게 되어서, 이 순간 이후에도 공격을 계속하면 공격이 지지부진해지고 적의 역습을 받게 되며, 나아가 패배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순간을 작전한계점이라고 부른다.

모든 제대 또는 작전술 차원에서의 공격은 이러한 작전한계점 이전에 결정적인 목표를 확보하는 것이고, 반면에 모든 방어술은 이 작전한계점을 재촉하고 그 도달순간을 인지하여 도달 즉시 공격으로 전환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은 북괴군의 작전한계점을 최대한 이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1950년 7월 20일경 대전의 피탈과 함께 7월 22일 수안보지역의 전선사령부를 방문한 김일성은 당초 계획대로 8월 15일 이전에 부산까지 확보할 것을 독전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군은 중동부전선에서 효과적인 지연전을 실시하고,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의 효과적인 지원으로 적의 작전한계점이 유도되게 된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8월 공방전은 제공권 및 제해권의 장악과 장병들의 진지사수의지로 효과적으로 적을 격퇴하며, 적의 마지막 전략예비였던 10사단(8월 공방전에 기투입)과 신편 7, 9사단, 전차 2개 여단규모를 투입, 5개의 임시공격집단을 편성 최후의 발악적 공격을 하는 9월 공방전을 치르게 된다.

당시 낙동강방어선에서 적 병력 상황은 8월 16일 이후 식량보급이 중지된 상태이며, 병력보충이 불가하자 현지에서 의용군형태로 강제로 전선에 투입된 상황으로 9월 공세 이후 작전한계점⁸⁾에 도달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인천상륙작전시기 결정을 9월 15일로 결정한 것도 적의 작전한계점을 이용하되, 최대의 취약점인 식량부족현상이 10월 이후 추수기로 접어들면 현지획득으로 식량사정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상륙시기 지연시 아군도 낙동강방어선 유지가 곤란한 작전한계점에 도달하여 아 중심에 해당되는 부산교두보 확보가 곤란할 것이며, 북한군이 인천지역에 방어력이 강화되거나, 정기적인 인천지역의 기상(태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던 것이다.

사실상 위에서 분석한 전사내용으로 볼 때, 작전 한계점에 도달한 전투력은 조직적인 방어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낙동강방어선에서 적을 고착견제하면서 아 중심인 부산교두보를 확보하고, 적의 작전한계점을 유도하며 적의 배후로 기동하는 작전선으로 적의 중심이 되는 병참선 및 퇴로를 차단하여 조기에 적의 주력을 격멸하는 작전목표를 달성하여 최소 전투에 의한 전세의 역전이라는 작전목적은 달성하며, 38도선 일대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서울수복

1) 경인지역의 적 상황

제10군단의 정보판단에 의하면 8월 말 인민군은 부산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8) 낙동강방어선에서 북한군 사기저하원인은 식량부족(21.4%), 항공폭격공포(17.9%), 훈련부족(11.3%), 무기 및 장비부족(9.8%), 휴식부족(9.8%), 협박적인 지휘(6.3%) 등으로 분석된다.

거의 모든 전투역량을 낙동강전선에 집중하고 있었고, 서울을 비롯한 후방지역에는 지역경비부대와 병참선 경비부대 그리고 훈련이 미숙한 신편부대가 산재해 있었다.

인천지역에는 월미도에 북한군 226독립육전연대 3대대 소속의 400여 명과 918 해안포연대 예하부대가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인천시가지에는 신편 9사단 예하 87연대(연대장 대좌 김태모)가 8월 12일부터 인천지역 방어 임무를 인수해 담당하고 있었다.

한편, 인천시가지 중 월미도 제방으로부터 북동쪽 주안염전까지 5~6km의 해안방어는 884군부대 예하 1개 대대가 배치돼 방어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판단을 고려할 때 인천지역의 적 병력 규모는 지역경비부대를 포함해 2000여 명에 달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지역에서 경계 중이던 제9사단은 8월 12일에 낙동강전선으로 이동했으며, 18사단도 9월 중순께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직전에 서울을 출발, 낙동강전선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때 서울지역의 북한군 병력은 김포지역의 500명을 포함해 약 5,500명이었다. 그 밖에 9월 4일까지 추가로 증원된 2,500여 명을 합하면 서울·인천지역에서 활동 중인 북한군의 총 병력은 1만여 명으로 판단됐다.

2) 김포지역 탈환과 수원방면 연결작전

9월 18일 미 해병대 제5연대는 김포비행장을 탈환한 후 한국군 해병대와 합세해 행주나루로 행했으며, 이 날 미 해병대 제1연대도 부천 소사지역을 통과, 이튿날에는 영등포 근방까지 진격했다.

한편 9월 18~19일 인천에 상륙한 한국 육군 제17연대와 미국 육군 제7사단 32연대는 영등포 남쪽으로, 미 제31연대는 수원 방면으로 신속하게 진격하여 미 제1기병사단과 9월 26일 밤에는 서정리(西井里)에서 연결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인천방면으로 북상하는 적의 증원부대를 차단하게 되었으며 이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이제 서울 탈환이 눈앞에 다가오게 되었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은 지금까지 후퇴만 거듭해온 한국군과 유엔군 장병에게 용기와 사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북한군 전쟁지도부는 서울의 남쪽에 대한 압박과 서

측방 방어선의 붕괴, 그리고 동쪽의 퇴로마저 차단되자 주력의 포위를 우려하여 9월 25일 야간을 기하여 실질적으로 서울을 포기하고 의정부 방향으로 주력을 급히 철수시키고 잔류부대로 하여금 시가전을 감행 한국군과 유엔군의 공격을 최대한 지연시키도록 하였으나 26일부터는 실질적인 적의 저항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서측방 방어선을 돌파한 한·미 해병대는 계속하여 서울 시내로 공격하여 9월 27일 한국해병대에 의하여 중앙청이 탈환되고 잔적이 소탕됨으로써 서울은 북한군이 입성한 지 3개월 만인 9월 28일 수복되었다. 낙동강 전선에서의 한국군과 유엔군은 상륙작전 성공 후 총반격을 실시하여 신속한 추격을 통해 북한군의 조직적인 철수를 와해 시켰으며, 상륙군과의 연결작전을 계획대로 오산 부근에서 실시함으로써 상륙작전을 통한 대포위 작전은 성공적으로 종료하게 되었다.

IV. 인천상륙작전의 복진 과 공훈

1. 3.8선을 넘어 평양까지 진격

미군에 앞서 평양을 탈환하는 것이 국군의 명예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백선엽 1사단장은 미 제10고사포단의 단장 헨닉(William C. Hennig) 대령의 건의에 따라 ‘보·전·포 협동 돌파작전’으로 진격 속도를 높이기로 결심했다. 백 장군은 미1군단 밀번 소장에게 미군 전차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10월 12일 국군1사단에 M-46 전차 21대로 편성된 미 육군 6전차대대 C중대가 배속됐다(국방일보, 2010, 10, 27, 35).

기갑전력을 보강한 국군1사단은 빠른 속도로 진격을 계속했다. 10월 14일까지 미 기병1사단이 금천, 국군1사단이 시변리와 신계를 장악함에 따라 38선 일대를 방어하기 위한 북한군의 3중 방어선은 붕괴 상태로 몰렸다. 10월 17일에는 국군1사단과 미1기병사단이 평양에서 40km 떨어진 곳까지 도달했다.

이 무렵 미1군단은 평양 점령을 위한 작전계획을 확정했다. 황주 일대의 미 1기병사단이 평양 남쪽으로부터 정면 공격을 가하고 국군1사단은 평양 동남쪽으로부터 측면 공격을 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 무렵 중부전선과 중동부전선을 돌

파한 국군2군단도 평양 동쪽으로 서서히 접근하고 있어서 북한 정권의 수도인 평양은 서서히 3면 포위상태로 빠져 들어갔다.

차량만 1000여 대 가까이 보유한 미1기병사단에 비해 겨우 50대의 차량과 미군으로부터 배속 받은 소량의 전차만을 보유했던 국군1사단이 진격 속도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사단장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국군1사단의 주요 간부들이 평양 일대의 지리에 밝았던 점을 활용해 과감한 작전을 감행, 미군 못지않은 진격 속도를 자랑했다(국방일보, 2010, 10, 27, 35).

10월 19일 미1기병사단과 국군1사단이 대동강 남쪽의 동평양에 진입했다. 이날 오전 11시 국군1사단 12연대가 대동강을 건너갈 수 있는 대동교 교량에서 100m 떨어진 지점에까지 진출했을 때, 큰 폭발음이 주변 일대를 뒤흔들었다. 국군과 유엔군의 진격 속도를 늦추기 위해 북한군이 대동강 위의 교량 3개를 모두 폭발시킨 것이다.

하지만, 북한군의 교량 폭파도 아군의 진격 속도를 늦출 수 없었다. 국군1사단 15연대는 이미 이날 새벽 대동강 상류에서 강을 건너, 대동강의 북쪽에 자리한 평양 본시가지 동쪽 방면에서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군1사단과 함께 미1군단이 공격하면 국군2군단도 평양 동북쪽에서 평양 공격에 합류, 3면에서 포위를 가하는 것이 원래의 작전계획이었다. 하지만 국군1사단을 비롯한 미1군단의 공격 속도가 너무 빨라 국군2군단 예하 부대 중 평양 최초 공격에 직접 참가한 부대는 국군7사단 8연대 예하의 일부 대대급 병력뿐이었다.

10월 20일 오전 7시 동평양까지 진출한 1사단 11연대와 12연대가 M-2 단정과 미군 공병이 대동교 부근에 부설한 부교로 도하를 개시했다. 이들 1사단 주력 부대는 전날부터 평양 본시가지에 진출한 1사단 15연대와 합류해, 이날 오전 10시 무렵 평양 전 시가지를 완전 장악했다. 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국군이 평양 탈환이라는 역사적 순간의 주역이 된 것이다.

2.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업적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은 수도 서울을 탈환하는 발판이 됐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 주력 부대를 포위, 붕괴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더구나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 유엔군과 국군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명 피해로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만약 인천상륙작전 없이 낙동강에서 38선으로 단계적으로 북상했을 경우 소요시간은 30일, 아군 인명 피해는 13만9957명에 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미군 측의 평가였다(국방일보, 2010, 09, 15, 31).

인천상륙작전이 없었다면 낙동강 방어전을 공세작전으로 전환해 전선을 돌파하는 데 필요한 시간만 13일, 예상 인명 피해는 5만8013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금강선을 돌파하는 데 7일의 시간과 3만2534명의 인명 피해, 천안~장호원선과 한강을 돌파하는 데도 각각 5일의 시간과 각 2만400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미군의 추산이었다.

실제로 인천상륙작전 후 38선까지 도달하는 데 유엔군과 국군이 입은 전·사상자는 8478명에 불과했다. 인천상륙작전이 없었을 때의 추산치와 대비해 겨우 6%에 불과한 인명 손실만으로 전세 역전에 성공한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양영조 박사는 바로 이점이 인천상륙작전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본다.

양 박사는 “낙동강에서 단순히 총반격으로 38선으로 올라갔을 때와 비교할 때 불과 10여 일간의 전투로 서울 탈환에 성공해 전체 전투일수를 3분의 1로 줄였을 뿐만 아니라 아군 병력 14만여 명과 국민 200여만 명의 피해를 줄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인천상륙작전의 의의를 평가했다(국방일보, 2010, 09, 15, 31).

인천상륙작전의 또 다른 의미는 핵무기의 등장과 함께 그 중요성이 평가 절하되던 상륙작전의 유용성이 다시금 부활한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과 유럽에서 미군이 전세를 역전시킨 발판은 모두 상륙작전이었다. 하지만 핵무기가 개발된 이후 상륙지점에 단 한 발의 핵무기만 떨어져도 상륙부대가 전멸될 것이라는 생각에 상륙작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하지만 인천상륙작전은 이런 편견을 깨며 상륙작전이 적절한 상황에서 실행될 경우 여전히 유용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줬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군과 중공군은 전체 18개 군단급 부대 중 무려 9개 군단을 동해안과 서해안에 배치해야 했다. 이 때문에 6·25전쟁 전문가들은 “유엔군의 또 다른 상륙작전에 대비하기 위해 공산군 측은 무려 전력의 50%를 후방에 배치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에 빠졌든 것”이라고 평가한다. “바로 그 점에서 인천상륙작전은 단 한 번의 작전 성

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 6·25전쟁의 결정적 작전 중 하나” 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은 극심한 밀물과 썰물의 수심 차이, 새벽과 오후 두 단계로 나눠 상륙전을 진행해야 하는 특수한 해양 환경, 항구 안벽으로 상륙전을 감행해야 하는 제약 등 수많은 제약사항을 극복하고 이뤄진 작전이란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 모험적인 작전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아군의 성공 비결이 있다” 는 오랜 군사 격언을 20세기 전쟁에서도 재입증 했다는 점에서 군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1950년 9월 15일 새벽 5시 미 해군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함재기들이 인천항 앞 월미도에 맹렬한 폭격을 가하면서 인천상륙작전의 서막이 열렸다. 5시 50분부터 순양함의 함포 사격이 개시됐다. 6시 30분 미 10군단 예하 해병1사단 5연대 3대대가 상륙을 시작, 월미도에 설정된 상륙예정 장소인 그린비치(Green Beach)에 발을 내딛는 데 성공했다.

3. 인천상륙작전이 남긴 교훈

북한의 무력남침을 알리는 UP 통신과 주한 미 대사관의 긴급보고가 미국에 타전 됐을 때 이 전쟁을 예측하지 못했던 미국은 오히려 신속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평화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고, 당시 미 태평양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전쟁 발발 나흘째인 6월 29일 전장을 시찰했으며, 이때 맥아더 장군은 인천상륙작전을 구상하게 됐다(국방일보, 2009, 09, 15, 조병희).

그러나 미 합참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인천상륙작전을 포기하거나 군산으로 할 것을 중용했지만, 맥아더 장군은 미8군이 낙동강 교두보를 끝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인천상륙작전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강한 집념을 보임으로써 작전 개시 불과 1주일 남겨두고 미 합참으로부터 승인받게 됐다.

인천은 자연적으로 상륙에 부적합한 장소였지만 서울과 불과 40km의 거리로서 서울을 점령했을 때 북한군의 병참선을 완전 차단하며, 심리적인 승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인천상륙작전은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공세로

전환해 북한군을 포위망에 가둬 망치로 섬멸하겠다는 작전이었다.

즉 경인지역의 미 제10군단이 모루가 되며 낙동강의 미 제8군이 망치가 되어 때린다는 것이다. 결국 인천상륙작전과 낙동강 반격작전의 성공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탈취하고 행동의 자유를 유지했으며, 낙동강 방어선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인천상륙작전을 전략·전술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첫째, 낙동강 방어선에 투입돼 있는 북한군 1, 2군단의 주력이 인천으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적의 배후를 지향해 기동을 실시, 물리·심리적 교란을 달성해 유리한 전략적 상황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주도권을 탈취하고 행동의 자유를 유지했으며 낙동강 방어선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었다.

둘째, 인천상륙작전은 전투 기간 20일을 앞당기고, 11만 명의 손실을 방지해 최소전투에 의한 승리가 가능했다. 또 전략적으로 인천 교두보를 확보해 서울을 점령함으로써 적의 퇴로와 병참선을 차단해 물리적 교란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고, 낙동강 전선의 적에게 심리적 혼란을 야기해 저항의지를 상실케 했다. 또 수도 서울의 탈환이 한국인에게 심리적으로 미치는 유리한 전략적 상황을 조성할 수 있었다.

셋째, 맥아더 장군의 창의적인 군사전략과 승리에 대한 강한 집념과 용기가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할 수 있다. 맥아더 장군은 적 보급로의 취약점과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을 분석해 서울만 점령하면 전쟁의 주도권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북괴군 병참선과 퇴로를 차단했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한 신념이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국방일보, 2009, 09, 15, 조병희).

올해는 인천상륙작전 59주년이 된다. 우리는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부여된 자원에 적합한 작전개념의 수립과 군사작전의 조건을 사전에 검토해 조치함으로써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불확실한 전장 상황 속에서 부대 지휘관의 전략이 얼마나 중요하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과 낙동강 반격작전은 군인으로서 철저한 분석과 결단성 있는 용기가 수많은 인명과 재산, 시간을 절약하면서 목표를 점령할 수 있게 한다는 값진 교훈을 주었다.

V. 결론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전쟁사(戰爭史)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쟁의 주도권 전환으로서 대우회 기동전략을 통한 기습으로 적의 병참선을 차단, 적에게 물리적·심리적 교란효과를 달성하여 적의 전투의지를 약화시킴으로써 공세이전의 계기가 되었다.

둘째, 한국군과 유엔군의 인적·물적·시간적 손실을 최소화 시켰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지상반격작전을 감행했을 때 북한군은 금강선, 천안-장호원선, 한강선, 38도선의 최소한 5개 지연진지에서 축차적으로 조직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약 10만 명 이상의 한국군과 유엔군의 손실과 수많은 민간인의 학살을 예상할 수 있었다.

셋째, 전략적 대포위기동의 대표적 전례가 되었다는 것과 이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지휘관의 전략적 식견과 미 해군 및 해병대의 전문화된 상륙전 능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천상륙작전은 작전 자체의 성과보다는 이후의 피·아 작전에 미친 영향에서 더욱더 전쟁사적인 의의를 갖는 작전이었다. 기습효과 달성을 통한 적의 전투의지에 대한 파쇄와 상대국 전쟁지도부의 성향, 그리고 언제든지 상륙작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해·공군 세력이 불균형, 전장의 지리적 특성이 상호 결합되어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작전은 6·25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로 다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8도선 이남지역에서의 전투에서 공세이전의 계기를 조성하여 일거에 전세를 역전시킨 점과 북한군의 전투력 와해로 인한 전쟁 주체로부터 이탈, 유엔군의 전쟁 목적 변경, 한국군의 전투사기 고양과 지형목표의 집착, 중공군의 개입시 추가적인 상륙작전 위협에 대한 대비책으로 각 공세시마다 북한지역의 동·서해안에 대상륙 방어부대를 분산 배치하지 않을 수 없게 함으로써 정면전선으로의 병력의 집중현상을 막을 수 있었던 것 등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친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이 기습적인 일격을 가해 전세는 급전됐다. 한국군과 유엔군에 쫓긴 북한군은 완전히 지리멸렬됐다. 실제 낙동강 전선으로부터의 추격과 인천-서

울지역에서의 포위를 벗어나 북으로 도주할 수 있었던 북한군은 2만 5000명 내지 3만여 명이 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됐다.

인천상륙작전의 전반적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적에게 결정적인 위협이 된 인천상륙작전은 직접적으로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을 급속히 와해시켰다.

둘째, 서울을 탈환함으로써 북한군의 전 병참선이 차단돼 적의 참패가 초래됐다.

셋째, 성공적으로 완수된 작전에 의해서 인천의 항만시설과 서울에 이르는 제반 병참시설이 북진작전을 위해 이용 가능하게 됐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이룬 최대의 성과는 낙동강방어선에서 단순히 총반격해 38선으로 올라갔을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불과 10일 만의 전투로 서울탈환에 성공해 전체 전투 일수를 3분의 1로 단축시켰으며, 아군 병력 14만 명과 국민 200여 만 명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자료

[참고 문헌]

- 강창국, 2004. “6·25전쟁기 피아 지상무기의 운용”, 『軍史』 제52호,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강창국, 2006. “무기운용으로 본 6·25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국방부, 1950. 『국방관계 법령 및 예규집』, 서울: 국방부.
- 국방부, 2009. 『국방백서』 2008, 서울: 국방부.
- 국방부, 『韓國戰爭史』 제1권 北傀의 南侵과 緒戰期(1977) · 제2권 遲延作戰期(1979) · 제3권 洛東江防禦作戰期(1970) · 제4권 總反擊作戰期(1971) · 제5권 中共軍 侵略과 再反擊作戰期(1972) · 제6권 制限戰線의 激動期(1973) · 제7권 對陣初期(1974) · 제8권 對陣中期(1975) · 제9권 對陣末期(1976) · 제10권 UN軍參戰篇-호주 등 9개국(1979) · 제11권 UN軍參戰篇-뉴질랜드 등 12개국(1980), 서울: 국방부.
-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戰爭』 上(1995) · 中(1996) · 下(1997),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 국방군사연구소, 1998. 『UN軍支援史』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 국방군사연구소, 1996. 『Documents of the National Security-美 國家安全保障會議 文書』 韓國戰爭 資料叢書 1 KOREA I(1948~1950) · 資料叢書 2 KOREA II(1951~1954) · 資料叢書 3 CHINA & JAPAN(1948~1954),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 국방군사연구소, 1998. 『UN軍支援史』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6·25戰爭史⑥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알아봅시다! 6·25전쟁사』 제1권 배경과 원인 · 『알아봅시다! 6·25전쟁사』 제2권 북한군 남침부터 중공군 개입까지 · 『알아봅시다! 6·25전쟁사』 제3권 고지쟁탈전과 휴전협정,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戰爭史 Ⅰ, 戰爭의 背景과 原因』 (2004), 『6·25戰爭史 Ⅱ, 北韓의 全面南侵과 初期 防禦戰鬪』 (2005), 서울: 국방부 군

- 사편찬연구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6·25전쟁 50주년기념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3. 『仁川上陸作戰』,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亂 1年誌』(1951)·『韓國戰亂 2年誌』(1952)·『韓國戰亂 3年誌』(1953),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6. 『韓國戰爭 要約』,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國防條約集』(1945~1980) 제1집,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제1권(2001)·제2권(2002),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2002. 『韓美軍事關係史』(1871~2002),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韓國戰爭史 1: 解放과 建軍』,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6. 『韓國戰爭 要約』,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 공군본부, 1954. 『空軍發展略史』 제1권, 서울: 공군본부.
- 공군본부, 1991. 『空軍史』 제1집 증보판 1949~1953, 대전: 공군본부.
- 공군본부, 1975. 『空軍25年史』 1948~1972, 대전: 공군본부.
- 공군본부, 2001. 『作戰命令』(1950~1953), 대전: 공군본부.
- 공군본부, 1991. 『UN空軍史』 한국전쟁(1950. 6~1952. 6), 서울: 공군본부.
- 김명섭, 2003. “6·25전쟁과 파병외교: 미국 이외의 20개 유엔참전국에 대한 연구 성과와 과제”, 『한국전쟁연구학회 학술세미나』 한국전쟁이 남긴 명제와 과제, 서울: 한국전쟁연구학회·조선일보사.
- 김행복, 1992. 『인천상륙작전 성공이 공산군에 미친 영향』 월간국방 225호, 국군홍보관리소.
- 남정옥, 2005. “6·25전쟁시 미군의 한반도 전개양상과 특징”, 『6·25전쟁과 동북아 군사관계의 변화』 국제학술세미나,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노병천, 2000. 『이것이 한국전쟁이다』, 21세기 군사연구소.

- 류재갑, 1993. “한국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방향,”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군사전략 발전방향』, 서울 : 국방대학원.
- 박명림, 1997. 『한국전쟁 : 전세의 역전과 북한의 대응』 전략연구 제10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서용선, 1999.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정책에 관한 연구: 봉쇄정책과 NSC-68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온창일, 1989. “초총력전 그리고 제한전 - 6·25전쟁의 수행과정” 『한국전쟁의 정치외교사적고찰』 한국정치외교사학회 논총 제5집, 서울: 평민사.
- 육군교육사령부, 1987. 『군사이론 연구』, 육군교육사령부.
- 육군대학, 1996. 교육참고 2-1 『한국전투사』, 육군대학.
- 육군대학, 1996. 독서자료 『작전술』, 육군대학.
- 육군대학, 1997. 독서자료 『작전술』, 육군대학.
- 육군대학, 2004. 『韓國戰爭史(上)』, 육군대학.
- 육군대학, 2003. 『韓國戰爭史(분석자료)』, 육군대학.
- 육군본부, 1970. 『北傀의 6·25南侵分析』, 서울: 육군본부.
- 육군본부, 1996. 야전교범 100-5 『작전요무령』, 육군본부.
- 육군본부, 1969. 『陸軍發展史』(上), 서울: 육군본부.
- 육군본부, 1988. 교육참고 7-7-8 『전장 사례연구(4집)』, 육군본부.
- 육군본부, 1994. 교육참고 7-7-12 『동서양의 전법과 전쟁사례』, 육군본부.
- 육군본부, 1992. 교육참고 7-7-11 『전쟁원칙 적용 전망』, 육군본부.
- 육군본부, 2001. 교육참고 100-1 『작전술』, 대전: 육군본부.
- 육군본부, 1978. 『한국전쟁 요도』, 육군본부.
- 육군본부, 1968. 팸플렛 70-17-1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육군본부.
- 육군본부, 1968. 팸플렛 70-17-3 『정책과 지도』, 육군본부.
- 육군본부, 1980. 『6·25事變 陸軍戰史』, 서울: 육군본부.
- 육군본부, 1994. 『6·25전쟁시 學徒義勇軍』, 대전: 육군본부.
- 육군사관학교, 1988. 『한국전쟁사 부도』, 일신사.
- 이창훈, 1990. “한국전쟁과 강대국 정치” 『한국전쟁의 역사적 재조명』 국제정치논총 특집,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전쟁기념사업회, 1991 ~ 1993. 『韓國戰爭史』 제1 ~ 6권, 서울: 전쟁기념사업회.
 최운대, 1994. 『인천상륙작전 재조명』 군사평론 313호, 육군대학.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 1954. 『大韓民國 海軍史』 행정편, 서울: 해군본부.
 해군본부, 1985. 『美海軍 韓國戰 參戰史』, 서울: 해군본부.
 해군본부, 1978. 『海軍30年史』, 서울: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1962. 『海兵戰鬪史』 제1집, 서울: 해병대사령부.
 해병대사령부, 1950. 『戰鬪詳報』 京仁地區().

Appleman, Roy E, 1987. East of Chosin Entrapment and Breakout in Korea, 1950, Texas A&M
 Aron, Raymond, 1983. Clausewitz, London: Melbourne and Henley.
 Badsey, Stephen, 1990. KOREAN WAR, New York: W.H. Smith Publishers Inc.
 Bender, Donald, 1993. "Webster's Encyclopedic Unabridged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Portland of America: Distributed Outlet Book Company.
 Boose, Donald W., 2005. US Army Forces in the Korean War 1950-53, New York: Osprey Publishing,
 Buzan, Barry, People, 1983. States and Fear: The National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Dupuy, R. E. & T. N. Dupuy, 1977. The Encyclopedia of Military History from 3,500 B.C. TO The present, revised edition, N.Y: Happer & Row Publishers.
 Dvorchak, Robert J., 2001. Battle for Korea, A History of the Korean Conflict, Fiftieth Anniversary Edition, New York: DA CAPO Press.
 Far East Command, 1952. History of the North Korea Army
 Hammel, Eric M., 1981. Chosin Heroic Ordeal of the Korean War,

- Vanguard Press, New York.
- Kegley, Charles W., Jr., 1995. *Controvers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Realism and the Neoliberal Challenge*, New York: St. Martin's Press.
- Longman, 1992.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New York: Longman.
- Malkasian, Carter, *Essential Histories 2001. -The Korean War 1950-53*, New York: Osprey Publishing
- Maxhastings, 1987. *The Korean War*, Simon and Schuster.
- Morgenthau, Hans J., 1973.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NY: Alfred A. Knopf, Inc.
- Mossman, Billy C., 1990. *Ebb and Flow 1950~July 1951*,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 Random House, 1980. *The Random House College Dictionary*, New York: Random House Inc.
- Schnabel, James F., 1972.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Publishing,
- Waltz, Kenneth N., 1959. *Man, the State and War*,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인터넷 신문 자료]

- 국방일보 2009. 09. 15 오피니언 조병희 소령(육군훈련소)
- 국방일보 2010. 09. 15 기획·연재 <31> 인천상륙작전
- 국방일보 2010. 10. 27 기획·연재 <35> 압록강

《ABSTRACT》

The contribution of Incheon landing

Yoo, Youngock
(Kyonggi University)

General Douglass McArthur's Incheon landing was expected that if when army of DPRK advanced on Seoul continuously, the line of supply will be better. And then, an allied army was sent to enemy's area for blocking the line of supply, so he destroyed totally them nearby the Nakdong River.

There had the war historical meaning about Incheon landing.

First, ROK could become to change the leadership from DPRK and to block the enemy's line of supply by detour task force strategy, so it made them harassing tactics and feel weak to will of combat. Therefore, this could be a chance of the winner of Korean War.

Second, South Korean army and the UN force could have less loss about human, time and physical force. When they defended at the Nakdong River, North Korean army pushed into until Kumkang, Cheonan-Janghwan, Han and 38 degree lines, so they could predict to be killed about 100,000 civilians and tons of losses.

we could learn how to set an operation when they had an emergency point and it became a good example for us. Also, it was estimated high about great leadership of General McArthur and professional landing skill of American marine force and the Marine Corps.

Accordingly, the best result of Incheon landing was that ROK army and the UN force could get back Seoul just in 10 days battle, so they made short time to combat and have less damage to kill about 2 million of normal people and 140,000 of soldiers.

During analyzing the Incheon landing, we found and called 'Theory of Probability' which can be explained the theory of military and scientifically fact. At the same time we realized that how much important what commander has to have which are a leadership, reasoning power, imagining, intuition, and judgment for fulfilling the war.

Key word: Military science, Politics, War history, Incheon landing, The UN force, Army, Marine force, Air force